



##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김창호  
대원의국어고등학교  
입학관리부장

### 들어가며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듯싶다. 사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어느 한 쪽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비단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세계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월성 교육이 중시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평등의 관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능력주의 사회가 정착하려면 평등적 사회 기반이 형성되어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계층간 갈등, 빈부간 갈등,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평등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등성과 수월성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능력주의 못지않게 평등주의에 대한 요구가 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에 대해 알아보고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의 다양화라는 제도적 측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 교육의 기회균등

우리나라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사회이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교육 받을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교육 받을 기회만 고르게 허용하면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를 이용할 것이므로 교육 평등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교육법 81조에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라고 정하여 평등하게 교육을 받도록 할 학교 시설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31조 1항이나 교육법 81조에는 기회 균등의 평등교육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월성 교육의 법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9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우수한 인재를 위한 수월성 교육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것은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현실에서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하는가가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 평등성 교육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평등화 정책은 1970년 이후의 평준화정책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고교 평준화제도는 수월성 교육보다는 평등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입시 과열화로 인한 학벌주의, 능력주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요즘 대두되는 계층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명문과 비명문으로 나뉘어져 있던 학교간의 서열화를 없애려는 시도였다. 평준화가 실시된 후 고입 연합고사라는 제도를 거치면서 중·고등학교에 평준화 제도가 정착되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능력의 차이가 현저히 다른 학생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시키다 보니 우수한 학생이 희생양이 되어 하향식 평준화가 되어 버렸다. 평준화 정책으로 획일적인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으로 인한 학생들의 능력 개발의 역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획일적인 수업은 수업 시간의 낭비와 더불어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게기가 되어 버렸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보다는 학원에 의지하게 되었고 이것은 곧 공교육 부실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사교육 열풍은 대학 진학이라는 과열화된 교육열의 소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제 역할을 하였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평준화 정책은 7차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다소 정착되는 느낌이다.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수준별 반편성,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이 한 예이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평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재정의 확충, 우수한 교사양성이라는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리라고 본다.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평등화 교육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평준화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이 그 예이다.

## 수월성 교육

앞에서 평등교육의 당위성을 말했듯이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근원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평등 속에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성원의 '차이', '다양성'을 차별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수월성 교육은 차별화된 교육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고 해당 분야의 능력 개발을 극대화하자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세계 각국

은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재 교육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발표에 의하면 영재교육 대상자의 비율이 미국 1~15%, 영국 5~10%, 싱가포르 1%, 호주 1%, 대만 1%, 러시아 1%로 제시되어 있다. 우리도 이미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부산과학고가 과학 영재고등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최근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가 고등학교 입시과열을 부채질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이것은 해당 분야에 우수한 학생들의 욕구 표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특목고를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수월성 교육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수월성 교육은 특정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2010년까지 초·중·고등학생 5%에 해당하는 40만명을 대상으로 수월성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월성 교육은 우수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야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다. 교육은 교육 받을 권리나 교육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는 행복추구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

평등성과 수월성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95%의 보편성 교육과 5%의 수월성 교육이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어서도 안 되지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영재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

인재양성과 인력 수급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간 원칙을 경주해온 평준화만으로 국가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 교육 평준화와 우수인력 양성은 공존하기 힘들지만 두 마리 토끼는 다잡아야 한다. 수월성 교육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평등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진행해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학입시제도의 다양화

작년 수시모집 전형에서 일부 학교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고등학교간 학력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실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 측에서 특목고와 강남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려를 한 것이다. 필자는 고교등급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학교 자체에 등급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많다. 특목고에 입학한 학생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게을리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일반고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도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로

는 지난 번 일부 대학에서 학교에 등급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일부 학생들에게 능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배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평등에 어긋난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듯싶다. 그러나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정책에 따라 본고사는 보지 못하더라도 논술고사, 심층면접 외에 학과에 맞는 전공적성시험 등을 통하여 대학에서 필요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도 단순히 수학능력점수나 내신으로 선발하지 말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월성 교육이 성공하려면 대학 입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은 내신성적이 나쁘기 마련이다. 우수한 영재들이 대학 진학에 불리하지 않도록 다양한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수월성 교육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내신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특목고나 과학교와 같은 우수한 인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면 누가 이런 학교에 입학하겠는가. 물론 대학 측에서 특별전형이나 다양한 선발방안을 마련하리라 생각한다. 95%의 보편성을 지닌 학생과 5%의 영재들을 고르게 선발할 수 있는 대학 입학제도 마련이 중등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리라 본다. 일부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이나 실업계 학생 특별전형, 특목고 특별전형, 특기자선발전형 제도 등은 평등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맺으며

평등성과 수월성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95%의 보편성 교육과 5%의 수월성 교육이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어서도 안 되지만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영재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사적 흐름으로 보아 지금은 수월성 교육이 강조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듯하다. 수월성을 강조하기 전에 계층적, 사회적, 빈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에서는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보상교육과 장학금 제도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조화를 이룰 때 학교 교육의 질을 한 차원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김창호

계명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진로지도부장 및 교무행정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입학관리부장을 맡고 있다.